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수기 공모전

전공 역량 최우수상

김○선(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

내 용

1.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에 신청하게 된 동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아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유아교육중점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자격증 10개를 취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스토리텔러 3급’입니다. 하지만 취득하고 난 후로 실제로 유아들 앞에서 인형극이나 동화구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결대학교에 들어와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2018년에 만들어진 소모임 ‘다붓’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붓’은 동화구연을 연습하여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봉사를 나가는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을 듣고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 참여 경험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과정, 참여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작년엔 한 사람당 동화 하나씩 선정하여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래동화를 모르는 유아가 많다는 것을 듣고 ‘소금맷돌’을 선정하였습니다. 판 동화로 제작하여 소금은 반짝이는 펠트로 만들어서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1학기엔 기존에 있던 동화인 ‘무지개 물고기’와 ‘배고픈 애벌레’의 동화 교구를 다함께 제작했습니다. 안양시 새마을 금고와도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구연을 연습하여 한 달에 두 번씩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안양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큰 버스 내부를 개조하여 의자를 빼고 책장을 넣은 형태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영아들과 유치원 아동들에게 동화구연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만 1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다양한 연령에게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에 열린 안양시 북페스티벌에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대표하여 참가했습니다. 부스에선 아동을 위한 동전지갑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령이 어려 직접 제작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하여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에는 창작동화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훈이 들어가는 창

작동화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그 동화에 맞는 교구를 제작합니다. 만들어진 교구는 유아교육과 과 행사인 함초롬제에 전시하게 되며 전공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동화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저는 배려, 기초습관에 대한 이야기인 「구미호의 생일」을 제작 중입니다. 판 동화로 제작하려 했으나 주인공인 구미호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막대 동화로 교구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3.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및 성과

처음 봉사를 나갔을 때 유아가 제 '무지개 물고기' 동화구연을 집중해서 듣고, 동화 내용을 흥미로워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용이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보다 약간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재미있게 들어줘서 뿌듯했습니다. 봉사가 끝나자 봉사기관 관계자가 동화구연은 유아가 동화를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인데 학생의 생생한 동화구연에 교사들까지 집중하여 즐겁게 감상했다며 앞으로도 자주 와서 유아들에게 다양한 동화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봉사 이후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동화구연 정기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 시간에 모의수업 과제가 진행되는데 교사를 맡아 동화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내어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창작동화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동화의 기초요소와 교구의 유형들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 동화구연을 연습하고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양한 동화 유형을 분석하고 본인이 가장 잘 구연해낼 수 있는 목소리를 찾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다붓'에 들어오기 전엔 발표를 정말 쑥스러워 했는데 자주 봉사를 나가서 발표하는 경험을 하고 난 후 지금은 발표나 모의수업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아직 유아교육과 내부에서도 소모임 홍보가 부족하여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18학번 2학년이 3명으로 가장 적은데 이번 공모전을 기회 삼아 많이 알려져서 다른 학우들도 소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도움 되는 소모임을 많은 학우들이 몰라서 참여를 못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소모임원이 많아 져서 봉사와 피드백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양시 내부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나 안양시의 다양한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더욱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홍보와 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아동문학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공 스터디와 같이 전공과목을 다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유아교육과 소모임 '다붓'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소모임에서 많은 동화 교구를 제작하게 되는데 교구를 제작 할 때 필요한 재료(펠트지, 색지,

하드보드지, 폼포드 등)를 지원해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봉틀도 구입하여 유아교육과 학우 전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제작실에 설치해두었습니다. '다붓'에선 교구를 제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봉사를 준비하며 동화를 분석하고 구연해보면서 수업 실력이 향상된다.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엔 유아들에게 직접 동화구연을 해볼 기회가 없는데 '다붓'을 통해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졸업 전에 동화구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연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동문학 과목에서도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고 모의수업 과제에서 봉사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나가면 동화를 듣고 좋아하는 유아의 웃는 모습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힘이 됩니다. 전공이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